

1. 목자와 양은 누구를 비유한 것인가요?

- ① 예수님과 우리들
- ② 대통령과 국민
- ③ 부모님과 우리들
- ④ 선생님과 제자들

2. 오늘 복음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 ② 하느님은 누구보다 위대하시다.
- ③ 예수님의 양들은 아무도 하느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었다.
- ④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불로 베푸신다.

3.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원주교구 영월본당의 신학생 신현빈 요한1세라고 해요.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 제4주일인 '성소 주일'을 맞아 특별히 어린이 여러분에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성소(聖召)', '신학생'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게요!

'성소(聖召)' 라는 말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소 주일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 자신을 봉헌한 사제, 수도자, 선교사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지요.



어린이 여러분은 신부님이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형이나 오빠들 중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 예비 신학생을 하고 있는 형, 오빠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먼저, 신학교에 입학해야 해요. 입학한 '신학생'들을 신자분들은 '학사님'이라고 불러 주세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6년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서품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인 '부제(副祭)'님이 되시고, 다시 1년 뒤에 사제서품을 통해 신부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 10,27)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들은 눈이 좋지 않아서 목자가 없다면 신선한 풀이 있는 곳도 찾을 수 없고, 또 무서운 이리들에게 위협을 받지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부르심!**
성소(聖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활 제 4주일
(성소 주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 10, 27)




성령

학년

이름

성명

1독서  **여행**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14.43-52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¹⁴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⁴³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⁴⁴ 그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⁴⁵ 그 군중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⁴⁶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⁴⁷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⁴⁸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⁴⁹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⁵⁰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⁵¹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⁵²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여행**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14.43-52

나 요한이 ⁹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겹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¹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겹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¹⁵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¹⁶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찍지 않을 것이다. ¹⁷ 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여행**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7-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²⁷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²⁸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²⁹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³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마리아수녀의
주일 복음 그림
- 바오로딸쿤텐츠

